솔라시도, 탄소중립 선도·명품 스마트 블루시티 조성

전남도, 해남 구성지구 산이정원서 '약속의 숲' 식목행사

전남도가 지난 8일 해남 산이면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구성지구 산이정원에서 탄소중립 '약속의 숲' 식목행사를 진행하며, 명품 '스마트 블루시티'로의 조성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탄소 저감 수종인 참가시, 황칠나무, 동백나무와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 도움 되는 느티나무 등 모두 2050 그루를 심었다. 이번 행사는 2050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솔라시도의 첫걸음을 떼는 의미있는 행사로, 전남도는 앞으로 체계적 성장관리를 통해 정원도시 솔라시도를 대표하는 '탄소중립 약속의 숲'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도시 솔라시도를 탄소중립을 넘어서 '탄소 역배출(Negative Emission)'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조성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통해 배출량을 줄여 약속의 숲, 산이정원, 태양의 정원 등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솔라시도를 '정원 속 도시'로 구현하고 있다. 주택이나 건물 사이에 인위적으로 공원을 배치한 기존의 정원도시와 달리 본래 그 자리에 있던 자연을 최대한 유지한 채 자연 속에 도시를 담아내고 있다.

'탄소중립 약속의 숲'을 조성한 것은 솔라시도가 정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도시 전체를 9개 테마로 구성하고 테마별 특색을 담은 정원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자연과 사람, 에너지가 공존하는 의미를 담아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중심에 조성한 '태양의 정원'을 시작으로 복합문화공간인 '산이정원', 꽃단지와 연계한 '대지의 정원', 솔라시도골프앤빌리지의 '별빛정원' 등 추가 정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인 솔라시도의 대표적 정원 프로젝트 산이정원이 관심을 끈다. 솔라시도 초입에 약 49만㎡(15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산이정원은 수목원, 산책로, 미술관, 카페, 놀이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단순한 볼거리에 머물지 않고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정원과 자연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공감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오는 8월 미리 오픈하는 미술관을 통해 신개념의 정원공간 '산이정원'을 만나볼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는 지난 8일 오후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내 산이정원에서 '지역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약속의 숲' 제막식 및 식목행사를 가졌다. 이날 식목행사에서는 탄소저감 수종인 참가시, 황칠나무, 동백나무와 미세먼지에 저감효과가 높은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등 모두 205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광주시, 옛 도심에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

2024년까지 283억원 투입 시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구축

광주시가 동구 옛 도심을 거점으로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구축한다.

광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지역 거점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에너지, 교통, 안전, 환경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 등 통합적인 스마트 도시 모델을 조성하고,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4년까지 동구 충장동·동명동·서남동을 중심으로 국비와 시비 각각 120억원, 민자 43억원 등 283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한화시스템 컨소시엄, 광주 도시공사, 동구청 등과 공모에 선정된 뒤 사업계획을 보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옛 도심의 대표적인 도시 문제 등을 반영해 에너지·교통·안전·환경 등 4개 분야 서비스와 인프라를 구축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한 '광주 2045 에너지 자립 도시 정책'과 연계해 'RE100(재생에너지 10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시티'를 지향한다.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해 공유하고 소비하는 전기자동차(EV) 충전소를 공공 부지에 구축하고, 스마트 주차장, 우범 지역 인공지능 폐쇄회로(CC) TV,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설치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지는 쓰레기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트(PET), 캔(CAN), 종이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류하는 재활용 수거 자판기를 구축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활용 수거 자판기, 도시 데이터 수집 등 사업 계획도 담아 오는 9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10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김정훈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구도심이 안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재난안전산업 신기술 육성 나선다

방재·소방 등 신기술 공모전 오는 7월 4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재난안전산업 분야 신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재난안전산업 신기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4차 산업 중심의 재난안전 신기술을 발굴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재난안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방재·소방·생활안전 등 재난안전산업 전반으로, 참가 대상은 광주지역 소재 기업, 예비창업자, 연구기관, 대학 또는 개인 등이다. 7월 4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서류는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를 거쳐, 제안자의 프리젠테이션(PT)과 질의응답을 통한 발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들에게는 광주시장 표창과 함께 대상 1팀(500만원), 최우수상 2팀(300만원), 우수상 2팀(200만원), 장려장 5팀(100만원) 등 총 10팀에 총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대구·경북에서 주최해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2022년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에 전시부스 제공과 함께 제품 시연, 국비사업 과제 기획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해 사업화도 지원한다.

광주시는 재난안전 분야 광주형 뉴딜정책의 가속화를 위해 AI 융합 디지털 기반 재난안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재난안전 산업 컨퍼런스 개최,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참가, 방재대학원 개설 대학 지원 등 재난안전 산업 기반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봄맞이 남도 감성여행 TV홈쇼핑 판매

전남 호텔&리조트 숙박상품 목포·무안, 곡성·담양 여행 상품

전남도가 지역 관광업계를 지원해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 일상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홈쇼핑 채널에서 전남 관광상품을 생방송 판매한다.

4월 한 달 동안 전남 호텔&리조트 숙박상품, 목포·무안 여행상품, 곡성·담양 여행상품 등 3개 관광상품을 판매한다. 6월에는 전남-제주 간 선박 연계 여행상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첫 판매는 지난 10일 오후 6시 20분부터 7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남도 힐링여행 특집으로 전남 호텔&리조트 숙박 상품이다. 판매가격, 고객 응대 및 혜택 등을 공정하게 심사해 여수 JCS호텔, 여수 라테라스리조트, 고흥 썬밸리리조트, 보성 다비치리조트로 구성했다.

운영업체는 부대시설 이용 할인, 객실 상향, 주변 관광지 및 체험시설 등과 연계한 할인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수도권 관광객 대상으로 전남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2박 3일로 구성한 목포·무안 및 곡성·담양 여행상품을 오는 23일 새벽 1시, 30일 새벽 6시에 각각 60분간 한 홈쇼핑을 통해 생방송으로 판매한다.

목포·무안 여행상품은 남도 봄맞이 감성여행이라는 테마로 무안 백련지 힐링길 산책을 시작으로 못난이 미술관, 오승우 미술관, 황토갯벌랜드 숙박, 목포해상케이블카, 목포근대역사관 등이 포함됐고, 목포동부시장 1만원 상품권 특전도 주어진다. 곡성·담양 여행상품은 봄내음 가득한 남도여행이라는 테마로 섬진강 레일바이크 탑승을 시작으로 차테라피, 공예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이 많고, 깨비정식과 대통밥&떡갈비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청년후계농 326명 선발 역대 최다…창업·교육 컨설팅

전남도가 미래 전남농업을 이끌 청년후계농업경영인 326명 선발(여성 67명)해 건실 후계농으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선정 인원은 2018년 최초 239명을 선발한 이래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49명의 청년후계농을 선발했다. 올해는 전년보다 121명 늘어난 616명이 지원해 경쟁률 1.9대 1을 보였다.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을 영농경력별로 구분하면 창업예정자 211명(64.7%), 독립경영 1년차 94명(28.8%), 2년차 13명(4%), 3년차 8명(2.5%)이다. 예비농의 경우 제도를 첫 도입한 2018년 21.3%, 2020년 52.4%, 2021년 59.2%, 올해 64.7%로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업계 졸업생은 237명(72.7%)이다. 농고, 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89명(27.3%)의 2.7배 수준이다. 부모가 영농기반을 갖춘 청년농은 219명(67.2%), 신규로 진입한 자는 107명(32.8%)이다. 품목별로 나누면 채소 80명, 축산 51명, 식량작물 50명, 과수 42명, 복합(축산, 경종) 41명 등의 순이다.

전남도는 선발된 청년후계농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보조하고, 희망자에게 창업자금을 3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선발한 326명 중 독립경영 1~3년 차 115명에게는 4월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며, 창업예정자 211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을 한 후 지원금을 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유기농 인증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전액 지원

전남도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유기농 인증농가의 경제적 손실 보장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유기농 인증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유기농 인증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한 농가의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그동안 전남도가 보험료의 90%를 보조하고, 농가가 10%를 부담했으나, 앞으로 도비와 시군비로 100% 지원한다.

작물별로 보험 가입 시기, 과거 재해 규모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 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보장 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벼와 고구마, 옥수수 등의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6월까지 예정됐다.

올해 사업량은 지난해 지원면적 1만3864ha보다 3136ha 증가한 1만7000ha다. 지난해 말 유기인증 면적 2만5816ha의 66%에 해당한다. 연도별 유기농 인증농가의 보험 가입 면적은 2019년 8540ha, 2020년 1만75ha, 2021년 1만3864ha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유기인증 농가 중 6775농가가 1만3864ha 면적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 보험금으로 198억원을 지급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